



‘비뇨생식기 암종의 영상’ 특별호 발간에 부처

윤성국 (비뇨기계 특별호 초청 편집장)

동아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



이번에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비뇨기생식기 종설 특별호를 발간하게 되어 기쁩니다. 한편으로 지난번 비뇨기생식기 종설들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지지로 인해 이번 특별호에 대한 부담이 많았으나, 기꺼이 집필을 해 주신 저자들과 세심한 수정과 보완을 해 주신 심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이번 호에서는 1) 방광 요로상피세포암: 영상의학적 관점, 2) 음낭 종양의 영상 소견, 3) 자궁부속기 종괴: 다중기법 MR 영상의 임상적용과 O-RADS MRI, 4) 자궁경부암: 개정된 2018 FIGO 병기와 자기공명영상을 중심으로, 5) 자궁체부의 양성 및 악성 종양의 자기공명영상 소견과 감별 진단 등의 총 5편의 주제로 종설을 준비하였습니다. 요로상피세포암은 임상에서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암인데 최근에는 방광암에서 VI-RADS가 발표되어 이 부분을 소개하였고, 음낭 종양은 젊은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서 염증이거나 염전과의 감별이 중요한 질환이어서 특별호에서 다루었습니다. 자궁부속기 종괴 중 난소암도 최근 O-RADS가 발표되었기에 소개를 하였습니다. 자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여성암인 자궁경부암과 자궁체부암의 자기공명영상 소견에 대해 종설을 실었고, 특히 자궁경부암은 2018년 FIGO 병기의 개정안이 발표되었기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. 상기 암종들은 우리나라 5대 암종은 아니지만 영상의학과 의사가 비뇨생식기 영역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는 질환들로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침의 결정, 그리고 추적 검사 등에서 영상의학과와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.

본 비뇨기생식기 종설이 회원들에게 유용하고 임상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